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제 1358 호 현대불교
2021년 10월 6일(음 9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제 전부 고정되지 않고 한 찰나야, 한 찰나!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데는 유창하게 설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이 그대로 참선이라는 거,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관하고 관하면서 뛰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 데서라도 한생각을 내면 법이 돼야 하고, 법이 됨으로써 그것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만 활용이 아니라, 우리가 움죽거려서 활용이 아니라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움죽거리는 활용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움죽거리지 않고 움죽거릴 수 있는 활용이 아주 필요해요. 이건 100%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과학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이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손가락 하나를 눌러서 될 일이라면 손가락 하나를 누르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누를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앞으로는 점점…, 우리는 이 마음의 계발이 필요하고 마음속에, 온 누리에다, 생명이 있는 고차원적인 인간에게는 다 그 보배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주어져 있는 것을 자기가 쓰지 못해서 걱정이죠. 왜 그것을 쓰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냥 놓고 지금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버리고 나투면서 고정된 관념 속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는 그러한 관념 속에서 그냥 관념 없이 무심으로 돌아가는데, 놓고 돌아가는데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를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납득을 못 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어저께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또 '내가 했다' 고 하고, 모든 것을 '나, 나, 나, 나' 하다가 보니까…. 나는 달팽이 껍질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달팽이 껍질 속의 달팽이, 달팽이 그 속에 참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자기는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안다면 공했다는 겁니다. 그 공했다는 건 수차에 얘기했죠? 그 공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눈 감은 것도 눈 뜬 것도 아닌, 감은 것도 내내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뜬 것도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선 것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야. 모두가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전부 고정되지 않고 한 찰나야, 한 찰나! 우리 살아나가는 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한 찰나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몇십 년을, 몇 년을 이걸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앞으로 미래로 성큼 넘어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뒤로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자기가 살아 있는 그 습이 거기에 그냥 똘똘 뭉쳐 있고 뭉쳐 있고 그래서 그게 업이 되는 줄 모르고, 그것이 찌꺼기가 돼서 자기를 자꾸 막아 가는 줄은 모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발 한 발 딛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어 놓았는데 벗어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저 신발을 그냥 무심으로 벗어 놓았습니다. 그게 금이라면, 그게 보석이라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벗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신발은 그다지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으로 벗어 놓는 겁니다. 만약에 금을 끼고 왔다면, 금을 신고 왔다면, 금신이라면 어이구, 저걸 끼고 들어오지 저기다가 저렇게 벗어 놓고 들어올 리가 없죠.

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이런 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하치않기 때문에 저기 그냥 벗어 놓는 겁니다. 저거 하나 잃어버리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지경이라면 저거 안 벗어 놓을 겁니다. 그와 같이 저렇게 무심코 벗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 지금 살림이며 참선이며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걸음, 저 문지방을 뛰어넘을 때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뛰어넘었습니까, 저 문지방을? 저기가 만약에 이승이고 여기가 저승이라면 생각을 하면서 뛰어넘었겠습니까?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자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거,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자체가 만약에 저승이라면, 서천국이라면 지금 여긴, 우리 지금 현실 세계를 동천국이라고 합시다. 해가 지금 떴다 이거야.

이 세상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이라 그런다면, 저기가 지금 이승, 여기가 저승이라고 한다면 무심코 저렇게 뛰어넘어야 할 텐데 벌써 저승이라는 게 있고 이승이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 놀음인데…. 다 마음의 조작이에요, 이게. 근데 그 마음의 조작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네 날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뭘 하며, 염불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 하며 목탁을 백네 날 쳐 봤던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근본 우리가 "얘, 너 먹어라.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설법이야, 응? 그리고 또 손 하나 움죽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맛있다. 너 먹어라." 이게 행이야, 행! 이게 그대로 설법이자 행이고 행이자 법이라 이거야, 우리가. 그대로 참선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가까이 턱밑에다가 놓고도, 그리고 모두 여러분이 무심으로 한 발 떼어 놓고 뒷발자국은 없어지고 앞발자국은 떼어 놓지 않았으니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불법이 그렇게 가지, 이파리 수효대로, 당최 가리상봉을 할 수 없이 이파리 하나하나가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니 이거 불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49년을 설해 놨어도, 그렇게 행으로 보여 줬어도, 나는 한 마디도 안 했노라고 했어도 그 뜻을 모르니 여러분이 어떻게 불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등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꼭 요점만…. 여러분이 옳게 가시나 안 가시나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래야 공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게 여러분 한 사람이 없다면 우주도 없는 거고 상대방도 없는 겁니다, 상대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개인이 있으니까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누구더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게 머리로 잔뜩 올라와서 머리로 다 온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도 나타나고 지장도 나타나고 모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하나가 어머니를 만나면 딸이 되고 남편을 만나니까 아내가 됐어, 금방." 한 찰나죠, 그게. 허, 고걸 잘 들으세요. 이 마음으로 깊숙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묘한 묘법입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회전하는 데 걸리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묘법입니다, 바로.

근데 금방 또 친구가 왔거든요. 그러니 한 찰나에 친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찰나에 누가 왔느냐 하면 애들 삼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찰나에 뭐가 됐느냐 하면 바로 자기는 형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하루에도 이름이 몇 가지가 됩니까?

그러니 여기 부처님이 해 놓으신 그 뜻이, 한 부처님께서 여러 수만, 천백억화신의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백억화신이라 하는 것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에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마음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누이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엄마가 됐다가 딸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야, 하루에 몇 번 변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는 족족 그 한 사람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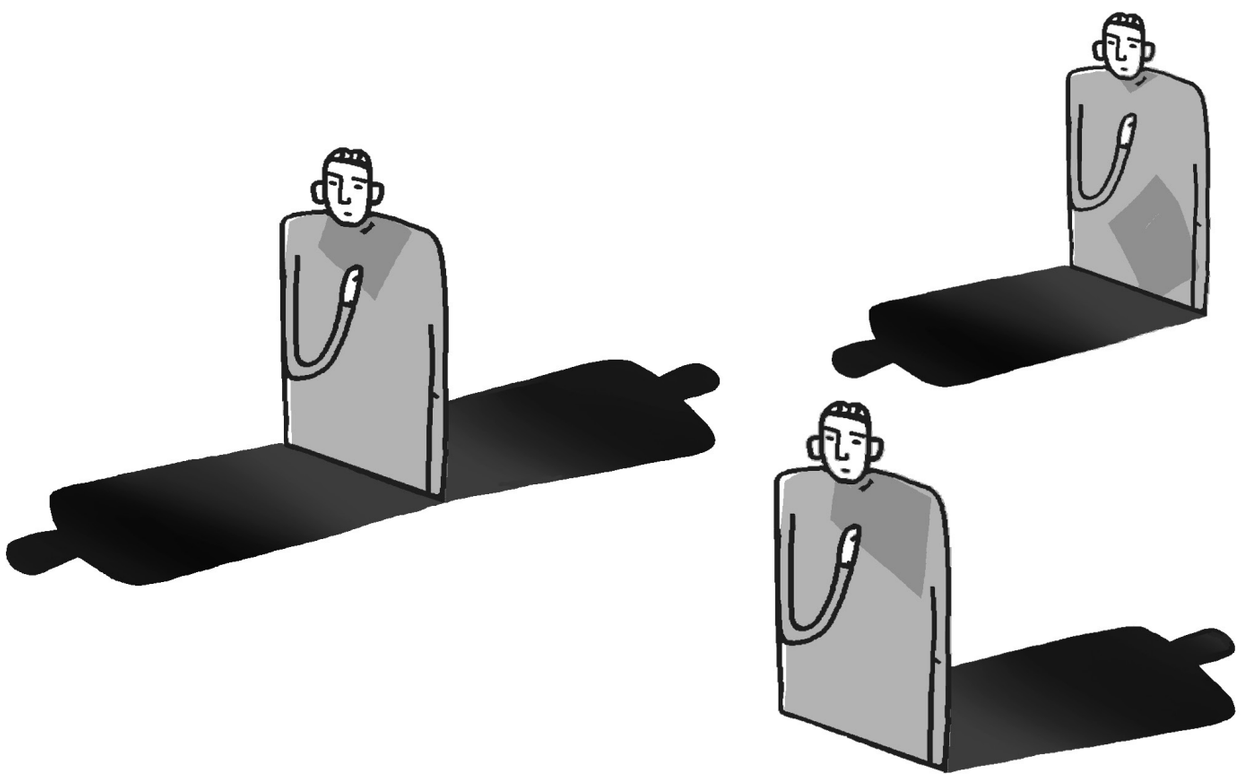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